

2022년 성탄 메시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루카 2,13)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이사 9,5)라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환희의 선물입니까? 해마다 맞는 성탄절은 우리가 내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모든 시련과 고통에 맞설 힘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요한 1,11)

멀리서 온 이방인을 위한 빈자리 하나가 없어 당신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는 지금 꿈을 잃어버린 이들, 가난하고 고립된 삶에 숨이 막히는 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시어 모든 것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 때문에 베들레헴의 구유를 잊고, 수많은 허영의 구유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가난해 보였지만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구유는 생명의 양식인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분의 참된 힘과 진정한 자유는 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당신의 가난과 겸손으로 선포하고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는 모든 상황에서도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시며 이들을 절대적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느님의 신비, 세상에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고 따뜻한 관계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성탄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새로운 사랑의 힘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랑의 힘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 환대의 땅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사람이 되시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변화합니다.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을 떨치고, 동참하고 연대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뻗어 아기 예수님을 들어 높이듯이,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며 갇힌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품에 안읍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태한 무관심에서 깨어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귀를 열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든 이들 안에서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이사 9,1)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특별히 우리 안에 오신 큰 빛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 대축일에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